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불안, 또래관계

문소현

이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 194명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불안,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조사한 탐색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안정성 척도의 점수를 상하위 25%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결과 안정애착집단은 불안정애착집단보다 사회불안점수가 낮고, 또래관계 점수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애착안정성은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 관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제어 : 학령기 후기 아동,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또래 관계

1. 서론

애착은 자신과 특정 개체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로서, 최근에는 평생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 유지된다는 전 생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특히 생후 초기 주요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맺는 사회적 관계로서 이처럼 생애초기에 형성되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자녀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서지원, 2005). 즉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면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사회불안의 증상들인 것이다(김은정, 2002).

사회불안은 상상적 혹은 실제적인 사회적 평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걱정, 자아 의식 및 정서적인 괴로움의 감정으로(Leitenberg, 1990), 사회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 불안의 임상적 양상인 사회공포증의 유병율은 13% 이상으로 다른 장애에 비해 높게 보고되고 있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Kessler, McGonagle, Zhao, Nelson, Hughes, Eshleman, Wittchen, & Kendler, 1994), Staruss와 Last(1993)의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 집단에서 사회불안의 평균 발병 시기는 12.3세로, 8세 아동의 경우에도 사회공포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였다.

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대상관계이론에 의해 살펴보면, 유아에게는 식욕이나 성욕 같은 원초적인 욕구 외에도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기본 동기가 있는데, 생애초기에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자라서 자신의 곁을 떠날 위협에 방어하기 위해서 사회공포증이 생긴다는 것이다. Bernstein, Borchart 와 Perwein(유경혜, 2002, 재인용)의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이 불안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애착은 아동기동안 형성해야 할 사회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인 또래 관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아동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Cassidy(김후남, 2007, 재인용)에 의하면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아동의 또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령전기에 비해 학령기는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관계의 영역이 극적으로 넓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들의 과제는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우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또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면서 또래 관계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된다(Buhrmester & Furman, 1987). 이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가까운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정서적인 요구가 일관되게 만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게 된다.

Bowlby(1969, 1982)는 애착은 영아기의 생존 수단인 동시에 전 생애를 통한 성격 발달의 적응적 기제이며,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에 아동의 자율성을 성취하고, 또래 집단에 속하는 등의 발달적 환경적 변화를 겪을 때 함께 변화하고 재통합을 겪으며 계속되는 것으로 애착과 또래관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발달단계상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격과 사회성이 발달되는 시기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Armsden & Geenberg, 198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사회성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애착 관련 연구들은 아동·청소년의 애착을 측정할 적당한 도구가 없어 영아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와 관계의 중요성만을 밝히려는 경향을 띠고 있어서 영아 및 초기 아동기에 비해 중, 후기 아동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Dwyer, 2005). 한편 사회불안을 보이는 아동은 다른 외현화 장애를 보이는 아동들과는 다르게 증상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동기의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간과되고 있으며(장혜인·김보경·오경자·양윤란, 2002), 기존의 또래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양적으로 아동의 지위인 또래

수용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로 아동이 지각하는 관계의 질이나 만족 등 또래 관계의 복잡한 모습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불안과 또래관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아동의 건강한 정서와 사회발달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시 가족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을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과 사회불안,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학령기 후기 아동인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가운데 M초등학교와 J초등학교를 편의표집하고, M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전수(102명)와 J초등학교의 6학년 학생 전수를(92) 대상으로 모두 194명을 조사하였다.

3) 연구도구

가. 애착안정성

Kerns와 Kepac 및 Cole(1996)이 제작한 '애착안정성 척도(The Security Scale)를 박현정(200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기 아동기부터 청소년 초기까지 부모-자녀관계에서 지각하는 안정감을 평가하고자 개발된 것으로 의존성 척도와 가용성 척도 두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의 합은 15점에서 60

점까지이고 총점이 높을수록 안정적인 애착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Kerns 등(1982)이 보고한 도구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이었으며, 이 연구에서 신뢰도는 .80이었다.

나. 사회불안

LaGreca & Stone(1993)이 개발한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검사(Revised Social Anxiety Scales for Children; 이하 SASC-R)를 김후남(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이 교우관계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7살에서 12살의 아동에게 적합한 도구이며, SASC-R은 3개의 하위요목, 즉 동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일반적인 사회불안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의 범위는 22점에서 11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수준이 높다. 김후남(2008)의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가 .83였고, 이 연구에서는 .90이었다.

다. 또래 관계

Ladd, Kochenderfer와 Coleman(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우정지각 질문지를 이호선(200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또래'라는 관계망을 대상으로 아동 스스로 지각하는 수평적이고 상호적인 또래 관계의 역동적인 양상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또래 관계의 양적측면과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도움정도를 묻는 5문항, 상호간의 배타성 정도를 묻는 3문항과, 상호간의 인정 및 수용정도를 묻는 3문항, 상호간의 마음을 터놓는 자기표현 4문항, 상호간의 의견 불일치 정도를 묻는 갈등 5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범위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은 것을 뜻한다. 이호선(200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9였고, 각 하위요목별 도움, 배타성, 인정,

자기표현, 갈등의 신뢰도는 각각 .72, .71, .61, .63, .56, .79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는 .90이었고, 각 하위요목별 신뢰도는 각각 .86, .81, .76, .80, .70이었다.

4) 자료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G광역시에 소재한 M 초등학교와 J초등학교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기재요령을 구두로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여 232부(92.8%)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94부(83.6%)를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여러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제시하였다.
- ② 대상자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사회불안, 또래관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애착안정성 점수에 따라 상위 25%를 안정애착집단, 하위 25%를 불안정애착집단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 ③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또래관계, 사회불안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분포는 M초등학교 102명, J초등학교 92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학생 46.4%(90명), 여학생 53.6%(104명)이었다(<표 1>). 평균 연령은 11.8세(10세~13세)였으며, 평균 체중은 42.2kg(21~80kg), 평균 신장은 149.6cm (130cm~168cm)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94)

변수	범주	n(%)	M(SD)	Range
학교	M	102(52.6%)		
	J	92(47.4%)		
성별	남학생	90(46.4%)		
	여학생	109(53.6%)		
연령			11.8(.75)	10~13
체중			42.2(9.06)	21~80
신장			149.6(6.65)	130~168

2) 연구변수의 특성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정도는 평균 29.45점(17~58)이었고, 사회불안 정도는 평균 47.10점(24~97), 또래관계 정도는 평균 64.32점(27~98)이었다(<표 2>).

<표 2> 애착안정성, 또래관계, 사회불안정도 (n=194)

변수	M(SD)	Range
애착안정성	29.45(6.91)	17~58
또래 관계	64.32(13.88)	27~98
사회불안	47.10(13.51)	24~97

3)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불안, 또래관계 정도

이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안정성 척도의 점수를 상하위 25%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상위 25%는 '안정애착집단'으로서 대상 아동 중 53명이 해당되었으며, 하위 25%는 '불안정애착집단'으로서 대상 아동 중 63명이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사회불안정도는 안정애착집단이 42.94점, 불안정애착집단이 51.47점으로서 불안정애착집단의 불안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t = -3.39, p < .0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또래 관계정도는 안정애착집단이 67.06점, 불안정애착집단이 61.72점이었다. 안정애착집단과 불안정애착집단의 또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16, p = .033$). 분석 결과 애착안정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또래관계 점수가 높고 사회불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또래 관계, 사회불안의 차이

	하위 25%(n=63)	상위 25%(n=53)	t	p
	M(SD)	M(SD)		
사회불안	42.94(12.03)	51.47(15.10)	-3.39	.001
또래관계	67.06(12.77)	61.72(13.84)	2.16	.033

4)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사회불안, 또래관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애착안정성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애착안정성은 사회불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 = -.30, p < .001$)를 보였으며, 애착안정성도 또래 관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r = .15, p = .04$)를 보였다. 예상한대로 애착안정성은 사회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 관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애착안정성과 또래 관계와의 상관계수는 .15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4. 논의

생애초기에 형성되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자녀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후의 발달과 적응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최근의 연구들에 의해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유용한 예측 변인으로 입증되고 있다. 애착불안정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부전은 횡단적이기보다 발달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발현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적당한 측정 도구의 부재로 영아 및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학령기 아동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Dwyer, 2005).

사회불안은 개인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다주는 것으로서 발달단계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발달단계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이제까지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문혜신, 2001; 송영희, 2006). 아울러 또래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 성취는 학령기 아동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나 기존의 또래 관계 연구들은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불안과 또래 관계의 차이를 검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 대상자의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불안과 또래관계의 차이 검정 결과 학령기 후기 아동이 지각한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은 감소하고 또래 관계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외로움이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면적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힌 Allen, Moore, Kuperminc 과 Bell(199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국내연구에서도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유형이 대인불안이 높고 안정애착유형이 대인불안이 낮으며,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수용적이고 불안과 분노가 낮다고 보고하여(민영숙, 2006; 이경

숙·서수정·신의진, 2000; 정민현, 2002)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대인관계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거나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되는 사회불안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심보숙(2008)은 부모 전체 애착과 아동이 지각한 또래와의 갈등간의 상관성이 유의하였고, 부모와 애착이 큰 아동일수록 또래와 갈등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안정적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들은 또래 관계가 더 활발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하며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고경애, 1983;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부모 애착이 아동의 또래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한 이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들이다. 즉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사회불안 예방 및 관리와 안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가족 환경요인으로 부모자녀와의 관계인 애착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기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애착안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격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중재 개발 적용을 통한 올바른 대인관계 및 사회적 상호작용 형성은 향후 성인기의 건강한 사회적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학령기 후기 아동 194명을 대상으로 애착안정성 정도에 따른 사회불안, 또래관계간의 관계를 조사한 탐색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 결과 애착안정집단이 사회불안이 낮고, 또래관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안정성이 사회불안과 또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불안과 또래 관계 관리시 가족환경요인인 애착안정성을 고려한 중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환경이

넓어지고, 많은 시간을 또래와 어울려 지내게 되면서 사회성이 크게 발달하게 되는 시기인 학령기에 간과되고 있었던 애착안정성이 적응과 정서 및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실증적인 확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G광역시 2개 학교의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표본을 사용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여 실제적인 변인 수준을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및 조사 방법을 보완하여 추후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애착안정성과 변수간의 관계를 밝혔으나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사회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낮추고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고경애. 1983. “모 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사회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2. 『사회공포증』. 서울: 학지사.
- 김후남. 2007.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불안간의 관계: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혜신. 2001. “또래의 괴롭힘이 청소년기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영숙. 2006. “초등학교 5, 6학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 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2001. “아동중기의 애착안정성이 자기상이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원. 2005. “초등학생의 모자 애착, 자아 탄력성 및 또래 폭력 경험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희. 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사회불안과 친구 관계의 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보숙. 2008. “부모 아동의 애착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경혜. 2002. “인지-행동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사회불안, 역기능적 태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서수정·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 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 청소년 정신의학』 11(1): 51-59.
- 이호선. 2001.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인·김보경·오경자·양윤란. 2002. “아동 및 청소년 사회불안: 자기, 부모, 또래 보고의 일치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논문집』 pp. 674-681.
- 정민현. 2002. “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대인불안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S. Wall.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len, J. P., Moore, C., Kuperminc, G., & K. Bel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msden, G. C., & M. T. Green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owlby. 1969. *Attachment and loss(Vol 5): Attachment*. NY: Basic Books.
- Bowlby. 1982. *Attachment and loss(Vol 1): Attachment(2nd)*. NY: Basic Books.
- Buhrmester, D., & W. Furman.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4): 1101-1113.
- Dwyer, K. M. 2005.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attachment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Human Development*. 48(3): 155-182.
- Kerns, K. A., Klepac, L., & A. Cole.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s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32(3): 457-466.
- Kessler, R. C., McGonagle, K. A., Zhao, S., Nelson, C. B., Hughes, M., Eshleman, S., Wittchen, H., & K. S. Kendler.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 C. Coleman.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aGreca, A. M., & W. L. Stones.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hildren Clinical Psychology*. 22(1): 17-27.
- Leitenberg, H. 1990. *Handbook of social and evaluation anxiety*. New York: Guilford Press
- Staruss, C. C., & C. G. Last. 1993. "Social and simple phobias in childre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7: 141-152.

문소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동신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 지금은 한국사회조사연구소에서 상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청소년기 여성의 분노 표현 유형-Q방법론을 적용하여”(2008), “청소년기 여성의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분노와 분노표현”(2008) 등이 있다.

[2008. 9. 15. 접수; 2008. 10. 10. 채택]